

새 영화

헬로우 고스트

'과속 스캔들'로 흥행 흥판을 날렸던 차태현이 주연을 맡은 영화로 웃음과 눈물이 함께 한다. 코믹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차태현은 1인 5역을 맡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한다.

부모 없이 홀로 자란 상만은 죽는 게 소원이지만 항상 실패한다. 어느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의 눈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골초 아저씨 귀신, 변태 할아버지 귀신, 울보 아줌마 귀신, 식신 초딩 귀신까지와 함께 생활하게 된다.

그의 몸을 사용하려는 귀신들의 방해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게 된 상만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하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 연수에게 한눈에 반한다.

극의 막바지로 갈수록 웃음보다는 눈물로 집중할 영화는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막강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대물', '바르게 살자'의 장영남과 '영화는 영화다', '의형제'의 고창석을 비롯해 드라마 '글로리아'에 출연 중인 아역배우 천보근이 귀신으로 출연한다. 김영탁 감독이 각본까지 직접 썼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변태·골초·울보·초딩귀신까지

죽는게 소원인 상만에게 딱 붙다

귀신도 울고 갈 차태현표 코미디



포복절도 웃음 넘어 감동·눈물까지 재미 2배

2011년은 코믹영화로 출발합니다

김명민의 새로운 발견 '조선명탐정' 코믹사극 '평양성' 등 줄줄이 개봉

코믹영화의 진수를 보여주겠다... 박중훈 '체포왕' 촬영 중

2011년 한국 영화계의 눈에 띄는 트렌드 가운데 하나는 '코믹'이다. 포복절도 코미디 영화도 많고, 따뜻한 이야기가 어우러진 코미디도 눈길을 끈다.

1월 포문을 여는 영화는 두편의 코믹 사극이다.

27일 개봉하는 '조선명탐정:각시투구꽃의 비밀'은 진지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유명한 김명민이 유쾌하고 엉뚱한 탐정으로 변신, 코믹 연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영화 '조선명탐정'은 정조의 밀명을 받아 활동하는 조선 제일의 명탐정이 개장수 서필과 손잡고 공납 비리를 파헤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코믹 연기의 달인 오달수와 한지민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황산벌'의 이준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평양성' 역시 유쾌한 코믹 사극이다.

전작에서 김유신역을 맡았던 정진영과 '거시기'로 웃음폭탄을 안겼던 이문식이 출연하며 연기와 배우 류승룡과 선우선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상견례'는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 아버지가 자식들이 상대 지역 여성과 결혼하려하자 이를 반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어눌한 전라도 말투의 송새벽이 남자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상대 여배우는 드라마 등에서 짝꿍이같은 역할을 주로 맡았던 이시영이다.

위험한 상견례



여기에 '조폭 마누라' 시리즈로 대박을 냈던 조진규 감독의 차기작 '박수건달'도 눈길을 끈다.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휴먼 코미디도 제작된다.

800만명을 동원하며 흥행 흥판을 터트렸던 '과속 스캔들'의 강형철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씨니'가 대표적.

40대 중년이 된 여성들이 고교시절 7공주였던 친구들을 찾아 나서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씨니'는 잔잔한 웃음을 전한다. 드라마에서 주로 활동했던 유호정과 진희경이 출연하며 민효란·남보라 등이 그녀들의 소녀 시절을 연기한다.

'오! 브라더스'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로 삼연타석 흥행 흥판을 날린 김용화 감독의 차기작 '제7구단'도 따뜻함이 함께하는 휴먼 코미디다.

'식객'의 인기 만화가 허영만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제7구단'은 주주동물원의 문제아인 수컷 고릴라가 우여곡절 끝에 프로야구팀에 들어가 슈퍼스타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밖에 휴전을 하루 앞두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전쟁을 벌이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그린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평생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짜질한 한 남자가 완벽한 미모의 흡수광 모델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임창정, 김규리(김민선)주연의 '사랑이 무서워'도 눈길을 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투깝스' 등을 통해 코믹 연기의 진수를 선보여온 박중훈도 정통 코미디 영화 '체포왕'을 촬영 중이다.

신예 임찬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체포왕'은 연쇄 강간범 '발바라'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범인을 잡아 체포왕이 되려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형사가 주인공이다.

박중훈이 무대포 형사 정의찬역을 맡았으며 현재 개봉중인 영화 '체제환 로맨스'로 흥행에 성공한 이선균이 과학수사를 주창하는 우재성 역으로 출연한다.

여기에 '방가 방가' 등을 통해 코믹 연기를 선보인 김정태와 드라마 '주몽' 등에 출연한 아역 배우 출신 안용준이 힘을 보탠다.

'방자전', '시라노 연애 조각단'에서 '미친 존재감'을 과시한 송새벽은 주연을 꿰찼다. 김진영 감독의 '위험한

스타박스 24시 사우나·찜질방

땀만 빼는 찜질방은 이제 가라!

스타박스가 광주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명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우나·헬스·에어로빅·요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Multi-Plex Fitness System' 으로 잃었던 '당신의 젊음' 을 되찾으세요!

| 회원가입 · 상담문의 | 062-383-7272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4 |
(내비게이션에서 '스타박스 사우나' 주소를 검색하세요)